

# 광주 전통시장 활성화 열쇠는 공동마케팅

## 상인조직은 전국서 가장 탄탄 전남은 활성화 수준 최하위권

광주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는 '공동 마케팅'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전통시장 활성화 수준은 2년 연속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전국 1511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장활성화 수준을 평가한 결과 광주지역 전통시장 21곳의 활성화 수준 평균 점수가 52.3으로 전국 평균 점수(49.3)를 웃돌며 충북(56.3), 대전(55.3), 제주(53.5)에 이어 전국에서 네번째로 높았다.

상인조직(65.2)이 전국에서 가장 탄탄했고, 상권매력도(56.6), 시설(53.5), 점포경영(48.6) 등은 다른지역에 비해 양호했다.

하지만 공동마케팅 평균점수는 E등급(29.4)에 불과했고 빈점포율 등을 조사한 시장운영은 55.9로 전국 13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시장 활성화 수준이 가장 높은 A등급은 남광주시장 1곳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울산(0개), 전남(1개)과 함께 A등급 시장 수가 적었다.

남광주시장은 상인조직(91.7), 공

동마케팅(80.0), 상권매력도(78.0) 등 조사항목 5개 중 3곳에서 A등급을 받아 활성화 수준 평균 점수 69.3으로 전국 29위를 차지했다.

시장이 활발한 편에 속하는 B등급은 대인·무동·봉선·양동·우산월곡시장, 양동복개상가 등 6곳이었으며, 보통 수준인 C 등급은 9곳, 미흡한 수준인 D등급이 5곳이었다.

특히 이들 시장 대부분이 공동마케팅 분야 평균점수가 20점대인 E등급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평균 점수는 43.6으로 2년(2010년 41.8)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116개 시장 중 89곳이 소

형시장인데다 상설시장도 35곳에 불과해 상인조직(42.1), 상권매력도(45.3), 점포경영(42.2), 공동마케팅(22.3), 시장운영(54.3)등 조사항목 대부분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기 때문이다.

A등급 시장은 목포자유시장 1곳이었으며 B등급 15곳, C등급 34곳, D등급 37곳이었으며 전체 수준인 E등급도 29곳이나 됐다.

박장석 광주시 경제산업국 경제산업정책관은 "공동마케팅을 제외한 대부분 항목에서 활성화 수준이 2년 전 보다 높아졌다"며 "시장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공동마케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한은 기준금리 또 동결 3개월째 2.75%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2.75%로 동결됐다.

미국 재정절벽 협상 타결과 함께 주요 선진국 경기지표가 상승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내 경제 여건이 옹호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11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75%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1, 12월에 이어 3개월째 동결이다. 한국은행은 작년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 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금리동결은 금통위가 현재 상황에 서도 완만하나 국내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에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 바닥을 다져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할 만큼 경기상황이 더 나

빠지지 않다는 뜻이다.

수출은 근로일 수 감소로 5.5% 줄었지만 일평균 20억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 11월 소매판매는 3.9% 늘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생산도 2.9%, 2%로 미약하나마 증가를 유지했다.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4%로 11월(1.6%)보다 떨어졌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2%의 낮은 수준을 지속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수요압력 완화 등으로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타결과 시장전망을 웃돈 성장률(3.1%) 발표, 중국의 내수지표 개선, 원자재 가격 안정 등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구룡포 직송 과메기 드세요

13일 오전 롯데백화점 광주점 식품관에서 제철을 맞아 포항 구룡포에서 산지직송 한 과메기를 직원들이 선보이고 있다. 과메기는 겨울철 청어나 굴지를 비드번법에 말려 건조시킨 것으로 DHA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어린이의 성장과 피부미용에 좋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피터 슈라이어 현대·기아차 디자인 총괄 사장 임명

피터 슈라이어(60·사진) 기아차 사장이 현대·기아차 디자인 총괄 사장으로 임명됐다.

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몽구)은 13일 현대·기아차의 디자인 역할을 높이고, 양사 간의 디자인 차별화를 통한 브랜드 혁신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슈라이어 사장은 향후 현대·기아차의 장기적인 디자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양 사간의 디자인 차별화를 점

점 및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슈라이어 사장은 독일 뮌헨대학 및 영국 왕립예술대학에서 산업·자동차 디자인을 배운 뒤 아우디 디자인 총괄책임자와 폭스바겐을 거쳐 기아차 디자인 총괄 책임자 부사장으로 국내 자동차업계 에 발을 디뎠다.

/임동률기자 exian@



## 효성 상업용 '사각 중공사' 카펫 인기몰이

### 오염에 강하고 복원력 우수... "중시장 점유율 1위 도전"

㈜효성이 특수 원사인 '사각 중공사'(Hollow)를 사용한 타일 카펫을 출시, 상업 카펫 시장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효성 인테리어PU가 최근 개발한 사각 중공사(中空絲) 카펫은 원사의 단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태에 4개의 중공(구멍)이 있는 특수 원사로 제작됐다. 이 원사는 일반적인 삼각 단면 원사제품에 비해 오염에 강하고 복원력이 우수해 국내외 고객들의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상업용 빌딩의 대형화에 발맞춰 관리 용이성과 안락성, 내구성 등에 대한 사용자들의 까다로운 요구에 적합한 제품이다.

국내 상업용 카펫 시장은 연간 360만㎡(110만평) 규모로, 이 가운데 사무실을 타일카펫 시장은 전체 카펫시장의 60%(210만㎡)를 차지하고 있다. 효성은 '스완카펫'이라는 브랜드로 국내 상업용 카펫 시장의 40%를 점유 중이다.



효성의 사각 중공사 타일 카펫이 깔린 사무실.

김승한 인테리어PU 사장은 "효성은 기존 타일의 톨 카펫과 사각 중공사 제품을 바탕으로 중국 일 반 상업용 시장과 고가 시장을 동시에 공략해 중국에서도 일등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다.

김승한 인테리어PU 사장은 "효성은 기존 타일의 톨 카펫과 사각 중공사 제품을 바탕으로 중국 일 반 상업용 시장과 고가 시장을 동 시에 공략해 중국에서도 일등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다.

한편, 효성은 지난 1968년부터 의류용 및 산업용 나일론 원사를 생산하기 시작해 원사 생산에서 제직, 염색 완제품 포장까지 가능한 국내 유일의 카펫 수직 일괄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채소·장·김치류 이어 밀가루·빵·과자·소주까지 줄줄이...

# 연초부터 식탁물가 인상 도미노

장바구니 물가가 연초부터 들쭉이 며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고 있다. 계속된 한파와 폭설에 신선식품 가격 급등한 데 이어 밀가루와 장류, 김치류 등 주요 식자재 가격도 잇따라 상승하고 있다. 물가 상승엔 주류 업계도 동참한데 빵과 과자류 등 가공 식품류의 가격 인상마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3일 aT농산물유통공사의 유통정보에 따르면 11일 기준 광주지역에 판매되는 월동배추(상품)는 kg당 120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350원 에 비하면 무려 4배 가까이 올랐다. 당근(무세척 상품)도 kg당 4250원으 로 1개월 전 2340원보다 2배, 1년 전 960원보다 4배 이상 상승했다. 월동 무(상품)와 대파(상품), 양파(상품) 등 도 1년 전 각각 kg당 360원, 980원, 700원으로 1000원 대 미만이었지만 올해엔 각각 600원, 2500원, 1300원 으로 2~2.5배 수준으로 올랐다.

CJ제일제당과 대상 등 식품업체들 도 주요 제품 가격을 이미 올렸거나

조만간 인상할 방침이다. 업계에 따 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11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공급하는 된 장과 고추장 등 장류 가격을 평균 7.1% 인상했다.

제일제당은 앞서 8일 밀가루 가격 을 평균 8.8% 인상했다. 또 지난 연말 에는 두부 제품을 평균 9.3% 값을 올렸고, 콩나물도 13.6% 상당 조정했다. 올리브유와 포도씨유 가격은 평 균 8.7% 높였다. 밀가루 가격도 동아 원이 지난달 21일 평균 8.7% 인상에 포문을 열었고, 대한제분도 8.6% 상 향 조정했다.

김치 가격도 들쭉이고 있다. 시장 의 절반을 점유중인 대상FNF는 '종가집 김치' 가격을 평균 6% 올리겠다 며 주요 대형마트와 협상 중이다. 동 원도 10% 안팎의 김치 가격 인상을 추진중이고, 풀무원 역시 뒤따를 것 으로 보인다.

소주는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참이슬' 가격을 8.19% 상당 조정했고, 롯데주류도 '처음처럼' 가격을 비슷한

수준에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신선식품뿐 아니라 주요 식자재와 가공식품까지 줄줄이 가격이 오르면서 전방위 물가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최근 수년 새 가격인상 요인이 많았지만 대부분 업체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든 가격을 올리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로또복권** (제528회)

당첨번호						2등번호 숫자
5	17	25	31	39	40	10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197,889,125				11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25,536,397				86
3	5개 숫자 일치	1,212,662				1,811
4	4개 숫자 일치	50,000				87,443
5	3개 숫자 일치	5,000				1,366,61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적중인가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구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구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구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Canon

EOS 6D

「세계 최경량\* 풀-프레임」

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캐논총판) 문의전화 062)383-3000